



## 2020년 안산도시기본계획

제9편

### 경관 및 미관계획

- I. 현황분석
- II. 목표 및 기본방향
- III. 경관 및 미관계획



# I . 현황분석

## 1. 현황 검토

### 가. 안산시의 경관특성분석

- 안산시 경관특성은 경관의 유형(시가지경관/자연경관/역사경관), 형태(면/선), 토지 이용에 따라 구분
- 시가지경관은 면(面)적인 형태인 주거지경관, 상업지경관, 공업지경관으로 구성되며, 선(線)적인 형태의 도로축경관 등으로 구성
  - 주거지경관은 기존 안산시 1단계 개발지역과 신도시 2단계지역으로 구분되며, 그 중에서도 단독주택지역, 연립주택지역, 아파트지역으로 구분
  - 상업지경관은 주로 전철역 주위의 역세권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현란한 간판, 불법주차 등으로 인하여 무질서한 경관을 형성
  - 공업지경관은 안산시의 대표적인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에 형성되어 있으며, 단순한 건축물패턴, 녹지의 부족 등으로 삭막한 경관이 형성
  - 도로축경관은 국도39호선(중앙로), 국도42호선(수인산업도로), 폭원 100m의 광역로, 안산선 등이 기성시가지의 대표적인 도로축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넓은 폭원 및 천철의 고가화에 따른 공간의 단절이 원인이 되며, 지방도303호선(대부황금로)은 대표적인 대부분의 도로축경관을 형성
- 자연경관은 면(面)적인 형태인 도시공원경관, 구릉지경관으로 구성되며, 선(線)적인 형태의 하천축경관, 해안축경관, 조망경관 등으로 구성
  - 도시공원경관은 기존 안산시1단계 개발지역의 화랑유원지, 노적봉공원 등과 신도시 2단계지역의 호수공원, 시화호갈대습지공원 등으로 구분되며 인공폭포, 인공호수 등 신도시로서 부족한 자연적 경관을 인위적으로 창출하여 안산시의 대표적인 경관요소로 형성

- 구릉지경관은 해발 1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경관을 말하는 것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원곡동, 선부동, 사사동, 사동 일대에 분포
- 하천축경관은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반월천 등이 형성되어 있으며, 안산천과 화정천은 신도시내의 APT단지 사이를 흐르고 있는 인공형 하천으로 정비되어 수변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친수 공간으로서 하천축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며, 해안축경관은 기성시가지의 반월국가산업단지의 인공해안이 삭막한 해안경관을 연출하고 있으나, 동축해안은 시화호 조성 및 대송단지의 조성계획 등으로 서서히 본래 모습을 잃어 가고 있음
- 조망경관은 안산시 북쪽으로 안양, 군포시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수리산에서 시작되어 서쪽으로 시흥시와 경계를 이루는 수암봉, 마산, 군자봉으로 향하는 줄기와 남쪽으로 수원의 칠보산으로 이어지는 줄기가 있으며, 대부분의 황금산, 구봉이 등이 대표적인 산지경관을 형성
- 안산시에 분포하는 문화재를 포함한 역사경관들은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로 별망성지, 사세총열문, 고송정지 등 문화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으나 접근에 제약성이 있으나, 안산시의 대표 인물인 단원 김홍도의 출생지로서의 그 이미지를 여러 곳에 적용시키고 있음

#### 나. 경기도 경관관리 기본계획

- 경관관리 기본계획의 목표는 경기도 경관현황 조사, 경기도다운 경관 미래상 수립, 경관관리 체계 정비 및 각 주체의 역할분담 방향 수립
- 해안축 경관관리지침
  - 자연형 해안의 절대 보전
  - 임지매립지 및 담수호주변 녹지축계획
  - 토지이용검토 및 바다 친화형 개발유도
  - 해양관광선 형성
  - 토목공사로 인한 경관훼손 복원
  - 경기서해 경관도로체계 수립

[표 9-VI-1] 해안축 경관관리지침

관리 목표	관리 지침
토목공사로 인한 경관훼손 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화 방조제 건설로 인한 대부도 황금산 일대 및 제부도 일원 식재를 통한 복원</li> <li>• 제부도 및 대부도에서 조망되는 화성시의 산림녹지 스카이라인의 훼손 및 채굴과 채광후 방치된 연안의 자연지형 훼손 현황 조사 및 복원 계획</li> </ul>
자연형 해안 절대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도, 제부도, 궁평리, 김포갯벌</li> <li>- 자연지형 및 해안에 연접한 산림녹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지구 및 대부도 일대의 갯벌과 강화도에 면한 염도의 보전 계획 및 자연공원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궁평리 서안과 백미리 일대의 해식애 및 사주 보호</li> <li>- 제부도 서안의 모래해안과 사구 그리고 왕모대와 연근해안 섬</li> <li>- 염습지 주변의 갈대밭 및 주변의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한강하구 철새도래지와 연계하여 서해안 생태관광권 형성</li> <li>- 해안 환경상 소음, 악취, 조망의 방해, 일정규모이상의 건축 및 도로건설은 제한하고 농수산양식, 골프, 승마, 휴식장, 해변산책로를 활성화</li> </ul> </li> </ul>
임해매립지 및 담수호 주변 녹지축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화지구 및 화성지구 매립지의 면적 30%는 인공수림대 및 습지 기타생태환경복원을 위한 녹지축 형성계획</li> <li>• 해안형 친수공원으로 조성 및 수도권 여가공간으로 활용</li> </ul>
토지이용검토 및 바다 친화형 개발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려한 경관을 보전·창조하여 토지의 가치증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해안의 자연환경과 역사자원에 대한 조사 연구</li> <li>• 종합적인 연안관리계획수립시 보전과 개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수립</li> <li>• 공업용지의 경우 녹화계획 의무화</li> <li>• 농업, 어업, 공업, 주거용지, 도로와 같은 기반시설계획시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 강화</li> <li>• 주요하천과 서해가 만나는 하구부분 수질을 포함한 생태환경 개선을 통한 경관개선</li> </ul>
해안관광권 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태관광권</li> <li>- 경기서해유적지탐방로</li> <li>- 휴양/레저/복합어촌마을</li> <li>- 인공해수욕장</li> <li>- 전통어촌생활 및 축제 지원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갯벌과 염습지 주변의 갈대밭 및 주변의 다양한 동식물 서식지를 보호하고 한강하고 철새 도래지와 연계하여 서해안 생태관광권 형성</li> <li>• 시흥 월곶-시화호-오이도-대부도 연안 상업시설 및 횟집 등 미관 개선 및 종합적 환경 정비계획</li> <li>• 제부도, 선감도 및 화성시 송산면-서신면 해안일대 휴양/레저/복합 어촌 체험마을 조성</li> <li>• 제부도 서면의 해수욕장 경관경비</li> </ul>
경기서해 경관도로체계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서해유적지탐방로 (동대 및 전망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김포 염도에서부터 아산방조제까지의 해안형 푸른색 관광코스를 다양한 해안경치 및 바다를 터전으로 누적된 역사자원과 함께 경기 서해의 자연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탐방로 구축</li> <li>• 김포 염도-시흥 월곶-시화호-대부도-화성-제부도-평택 서해대교-아산방조제를 잇는 경관도로(해안형 유람선, 자전거, 승마, 산책로, 경관 드라이브코스)</li> <li>• 서해역사문화 탐방로(김포문수산성 및 돈대, 시화호 고정리 공룡화석지구, 화성일대 성지와 포구 복원 계획)</li> </ul>

## ○ 권역별 경관관리지침

[표 9-VI-2] 경기서해권 경관관리 지침

항 목	적용대상	관 리 지 침
산림 (표고50m이상)	권역내 연속적으로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체로 평지에 낮은 구릉성산지가 배경을 형성하므로 건축물이나 공장등에 의한 산림스카이라인의 파괴가 다른 권역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보임</li> <li>• 주요 조망지점(해안면, 주요간선도로, 시가지 공공장소)에서 바라보이는 산림스카이라인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안산시와 화성 해안주변 토석채취 및 채광 후 방치된 훼손된 산림지역은 경관 복원 계획 수립</li> </ul>
개발제한구역	시흥, 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흥과 화성시 시가지 외연부에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축사/비닐하우스/불법영세공장 등 불량 경관에 대한 관리 필요</li> </ul>
녹지자연도 8등급 이상 녹지)	화성 일부에 약간 분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권역내 대부분이 구릉성산악으로 8등급 녹지가 거의 없으나 일부 분포하는 8등급 이상의 우량녹지의 영구보존위해 심의강화 필요</li> </ul>
준도시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 골프장을 제외하고 비교적 적은 면적에 지정</li> </ul>
평야	화성시, 김포시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화성의 남양 일대와 평택의 오성들, 진위천변으로 양호한 평야지대가 형성되어 있음</li> <li>• 평야내의 송전탑, 인근의 공장 굴뚝 등 평야의 트인 경관을 방해하는 수직적 시설물의 설치시 양호한 평야경관에 최소한의 시작영향을 미치도록 저감대책 마련</li> </ul>
미지정지구	대부도 인근의 매립지, 화성시 향남면, 포승공단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확보를 목적으로 현재 매립 진행중인 화성시의 미지정지구는 염습지로 형성되어 있어 환경성과 경관가치를 고려하여 토지의 지가를 상승시키고 경관적으로 매력있는 적정 용도 개발필요</li> <li>• 매립지의 1/3은 해안가 생태경관 녹지축으로 조성</li> </ul>
매립지	안산과 화성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도권 시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청정한 질 높은 해안형 여가 공간으로서 해안경관의 질적 향상이 도모될 수 있는 21세기형 자연 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으로 유도</li> </ul>
택지개발지구	안산 고잔지구, 평택의 국도 1번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택과 화성 등의 주요도로주변과 기성 시가지 주변으로 형성되는 공동주택 단지계획은 기성 시가지와 농경 풍경과 원충지로서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총고/외관에 대한 실제 적용 가능한 디자인 지도 및 건축심의 내용 제시</li> </ul>
공단	경부축인 국도 1번변, 서해안면, 시화/반월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공단임에도 녹지의 부족, 거대건물군의 해안경관파의 부조화, 보행자 공간의 부족 및 삽박한 산업도로경관 등 공단의 어메니티향상 계획 요구</li> <li>• 건축물의 노화, 가로수식재, 공단내 공원 및 전망대의 조성, 산업도로변 건축물 색채계획</li> </ul>
개발제한구역 기존취락지	시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의 소규모 산재 분포된 기존취락지는 고층·고밀화와 주변파의 부조화 및 기반시설의 미흡 등의 문제가 심각</li> <li>• 주변경관파의 피리감을 완화시키고 도시시설이 단위별로 충족된 주거형 시가지로 계획적 조성유도</li> </ul>
시가지외연부 난개발관리	화성의 태안읍, 화성의 남양, 평택역주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규모 택지개발지와 기성시가지 주변으로 확산된 공동주택위주의 난개발은 평야 권역에 특성을 훼손하고 있어 농촌형 전원도시계획수립 및 농촌형 공동주택 건축디자인 향성정책 요구</li> </ul>
구시가지 경관 개선	김포/평택 구시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부적인 과밀, 협소한 도로폭, 노후건축물 등의 문제점을 보이는 구시가지를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한 마스터플랜 수립후 순차적으로 정비하며 지역성을 반영한 경관계획 수립 필요</li> </ul>

## 2. 잠재력 및 문제점

[표 9-VI-3] 경관요소별 잠재력 및 문제점

구 분			자 원	잠재력 및 문제점
유형	형태	경관		
시 가 지 경 관	면	주거 지 경관	원곡동, 선부동, 와동, 월피동, 부곡동, 일동, 본오동, 사동, 고잔동, 대부도의 주거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도시1단계지역에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등이 혼재되어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및 대부도 주거지역에는 비교적 노후취락이 밀집되어 있음</li> <li>신도시2단계지역에는 고층 아파트단지 및 신축 다세대주택 등이 주거지 경관을 형성</li> </ul>
		상업 지 경관	중앙역 앞, 안산역 앞, 상록수역 앞 상업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로 전철역세권에 상권이 밀집해 있어 상업지역의 경관을 형성하고 있으나, 전철노선 및 중앙로로 인한 남북의 공간적 단절에 따른 상업지역 경관의 이원화</li> <li>중앙역 앞 상업지역은 신축 고층빌딩군으로 경관이 형성되어 있으며, 안산역 앞, 상록수역 앞 상업지역은 비교적 저층의 노후된 상가군 형성</li> </ul>
		공업 지 경관	반월국가산업단지, 시화국가산업단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산업단지내부는 가건물 형식의 컨테이너식 건물군들이 산재해 있으며, 식재 등의 부족으로 인한 삭막한 경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음</li> </ul>
	선	도로 축 경관	중앙로(국도42호선, 수인산업도로), 광덕로, 대부황금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앙로, 광덕로는 안산시의 중심도로로서 비교적 정비가 양호하게 되어 있으나, 나머지 도로들은 안산시의 특색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음</li> </ul>
		구릉 지 경관	해발100m 이하의 낮은 구릉지경관을 말하는 것으로, 반월국가산업단지와 원곡동, 선부동, 사사동, 사동 일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지 내부의 구릉지는 대부분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어 시민들이 접근이 양호하나, 대부도의 구릉지는 토취장 등의 목적으로 해손되어 있음</li> </ul>
자 연 경 관	면	도시 공원 경관	화랑유원지, 노적봉공원, 사동공원, 갈대습지공원, 호수공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가지 내부 도시자연공원은 대부분 양호하게 정비되어 있으며 안산시의 대표적인 공원으로서 조성되어 있으나, 기타 균린공원에 대한 정비는 미비하므로 특색있는 경관연출 필요</li> </ul>
		해안 축 경관	대부도 서쪽 해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성시가지 남측 및 대부도 동측의 시화호는 배립에 따른 해안경관과 서해안의 특징인 갯벌이 분포하고 있어 내륙으로부터 해안으로의 자연경관 보호 및 유지가 필요</li> </ul>
	선	하천 축 경관	안산선, 화정천, 신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시의 자연하천이나, 유량이 미비하고 공단의 오염원 방류 등으로 하천의 수질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체계적인 녹화사업 등 수변공간 정비로 하천축경관의 재정비 필요</li> </ul>
		조망 경관	수리산, 수암봉, 마산, 군자봉, 황금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시의 조망권을 형성하는 북측 산지 및 대부도의 황금산 등 자연경관 등의 확보가 필요</li> </ul>
역 사 경 관	문화재 역사유적	사세총열문, 별방성지, 안탄대선생묘, 팔곡리향나무, 오정각, 고송정지, 안산읍성 및 관아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재 및 유적 주변의 건축물, 시설물 및 안내 표지판이 안산시의 경체성을 표현하기에 부족</li> </ul>

## II. 목표 및 기본방향

### 1. 목표

- 도시의 미래상과 정체성에 부합되는 경관이미지 설정
- 자연경관과 인공경관과의 조화 유도
-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하위계획과 각종 개발사업의 경관의 보존 및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2. 기본방향

#### 가. 시가지경관

##### ■ 주거지경관

- 주거지역 세분화를 통한 적정 밀도 및 층수를 설정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경관 조성, 유지하도록 계획
- 우선해체집단취락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해체되는 주거지들은 전원형의 경관을 조성, 유지하도록 계획
- 건축물의 형태, 색채, 재질 등의 이미지가 단지 내에서 유사성을 갖으며 담장 및 가로변 녹화를 통해 돼적한 주거환경을 조성도록 유도
- 아파트 등 높은 층고의 공동주택지는 주변 자연경관과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하고 시각을 확보도록 조성하고, 건축물의 배치, 형태, 색채 등으로 획일적인 경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권장 유도
-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하여 마을별, 단지별로 ‘경관만들기’ 사업 추진

## ■ 상업지경관

- 도심, 지역중심 등 중심지체계의 위계에 따른 건축물의 밀도, 높이, 건축선 등의 규정 수립과 스카이라인 등의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계획토록 유도
- 지구단위계획 등을 통하여 건축물의 외관, 높이, 색채, 재질 등에 의한 경관형성을 유도하고, 통일성과 목적성을 유도하는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규제만 수립

## ■ 공업지경관

- 시화MTV, 시화호 간석지 등 미래형 첨단산업단지 이미지에 맞는 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외관, 배치, 밀도 등을 제어할 수 있는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유도
- 기존 산업단지의 첨단산업으로의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첨단산업단지 이미지에 맞는 경관 창출을 유도

## ■ 도로축경관

- 주요 도로변 및 해안도로변에서 양호한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조망공간 및 보행자공간 조성
- 안산시의 상징적 이미지가 고려된 가로시설물 디자인계획 등을 통한 매력있는 도로경관 연출

## 나. 자연경관

### ■ 구릉지경관

- 구릉지산지와 조화되는 스카이라인 형성 및 조망을 위해 시각통로를 확보토록 주변 건축물 규제
- 경관상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산지·구릉지의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의 지정을 통하여 경관보전을 위한 법률근거 마련

### ■ 도시공원경관

- 기 조성된 도시공원을 정비하고 미 조성한 공원의 단계적 추진 및 생태공원화를 유도하여 자연과 친숙한 공간으로 조성 유도
- 공원·녹지의 네트워크화를 통하여 공원녹지권을 형성하고, 신규개발지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연계방안을 수립토록 유도

## ■ 해안축경관

- 대부도의 해안도로를 위한 기존 수변경관지구의 관리 및 신규보호지역에 신설지정
- 대부도 해안도로 개설시 우수한 해안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공간 및 휴게공간을 적지에 확보
- 연안정비사업중 양호한 해안경관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계획 수립

## ■ 하천축경관

- 하천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수려한 하천경관 창출 및 도심 오픈스페이스로서 자연의 접촉 장소에 대한 보전과 재생계획 수립
- 하천변 일정폭을 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관훼손을 예방하고 주변과의 조화로운 경관조성을 유도 및 관리
- 하천변 녹화계획을 통한 공원녹지축과의 녹지흐름을 연계하고, 하천과 구릉지, 공공장소와의 결절점에 친수공간 조성

## ■ 조망경관

- 안산시의 조망권을 형성하는 북측 산지 및 대부도의 황금산 등을 조망축으로 설정하여 관리
- 특색 있는 조망경관 창출을 위해 야간경관계획 및 조망축상에서 안산시를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 다. 역사경관

- 문화재, 역사유적을 중심으로 역사적 건축물·유적 경관을 지정하고, 주변 환경은 역사적 유산과 조화시키도록 하여 역사적 환경을 확대·형성
- 주요 역사요소에 대한 조망지점과 조망대상을 설정하여 역사적 조망경관을 보존토록 계획
- 역사·문화지역은 별도의 경관관리지점을 수립하여 주변지역의 개발행위가 있을 경우,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역사·문화 이미지 및 장소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

### III. 경관 및 미관계획

#### 1. 유형별 경관계획

##### 가. 시가지경관

###### ■ 주거지경관

- 단독주택지는 주변 환경을 고려한 건축물 외부마감 및 색채의 통일감을 형성하고 외형의 다양화 및 지구단위계획 등의 가이드라인에 의거한 마감재 및 색체 제어
- 공동주택지는 형태적 변화와 시각적 개방감을 느낄 수 있는 유연한 배치패턴을 유도하고 대단위 건축물에 대한 입면건폐율 적용으로 조망권 확보

###### ■ 상업지경관

- 공공 및 상업·업무용 건축물은 외관에 특정 디자인 모티브 도입 및 통일감 있는 조성으로 지역적 테마나 이미지 부각
- 외부공간은 휴식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고, 야경연출 강조로 공공건축물 인지성 향상 및 부드럽고, 친근한 이미지 연출로 장소성과 방향성 부여
- 옥외광고물에 대한 엄격한 지침 및 조례를 적용하고, 신규개발지는 옥외광고물 계획을 사전수립토록 권장

###### ■ 공업지경관

- 기존 산업단지는 주변의 녹화를 권장하고, 리모델링 또는 재건축시 친환경적 경관으로 변화를 유도
- 시화MTV 등 신설되는 공업지역은 사전에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첨단산업 이미지와 친환경적 이미지가 조화된 경관연출을 유도

##### 나. 자연경관

- 기존시가지의 마산, 수암봉, 나봉산 및 광적산, 노적봉 지역과 대부도 전지역을 중심으로 자연경관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산림 경관의 절대적인 보전과 조망 확보

- 자연자원의 최대한 보전 및 향토수종 식재를 통한 종의 보전과 조수보호구역의 재 조사를 통한 절대적 보존지역을 검토하여 안산시의 생태계 보전

#### 다. 역사경관

- 역사문화지구를 설정하고 주변지역의 경관저해요소 및 이질경관요소를 정비하고 극단적인 경관변화가 나타나지 않도록 별도의 역사경관에 대한 지침을 마련
- 보전을 위한 일률적인 규제와 관리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안 강구
- 문화재 또는 유적지의 진입부와 주변지역의 양호한 경관형성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정비

### 2. 특성별 경관계획

#### 가. 경관축

- 수변/해안축 : 시화호, 대부도 해안 중심의 해안축과 화랑저수지 – 화정천 – 안산천 등의 수변공간 활용을 통하여 수변축 경관 형성
- 도로/철도축 : 기존 주요 가로망 및 안산선과 새로이 설치되는 광역교통도로 및 광역전철망에서 조망되는 도시가 매력 있는 경관으로 창출되도록 유도
- 녹지축 : 조성된 도시공원을 중심으로 관리·정비하고 신규조성 공원과 완충녹지 등을 연계하는 네트워크 구축으로 녹지축 경관 형성

#### 나. 진입부/결절부

- 진입부 : 안산시 시경계에 시를 상징하는 조형물 등을 설치하여 시로 진입하면서 도시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연출
- 결절부 : 도로 교차부 등에 시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은행나무 식재 및 가각부 등에 쌈지공원 등을 조성하여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확보

#### 다. 랜드마크

- 공공건축물 및 교량 등에 상징적인 외관조성, 야간조명 등으로 시의 인지성을 제고될 수 있는 상징적인 외관조성, 랜드마크적 요소를 형성도록 유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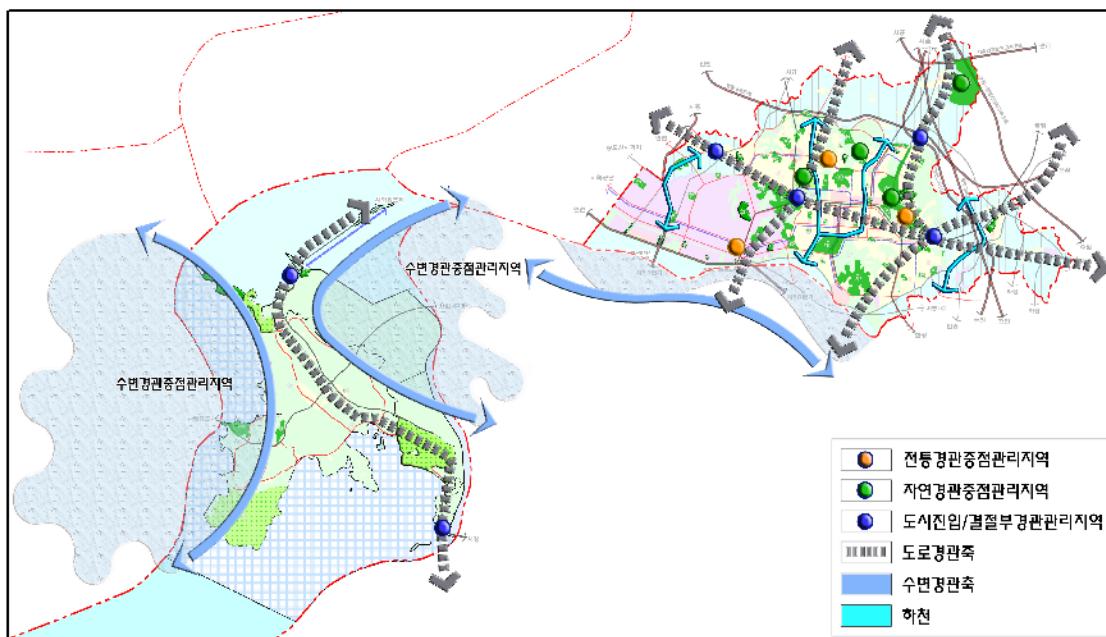
#### 라. 도시 스카이라인

- 도시전체의 심미성, 장소성, 식별성 등을 고려하여 인접 경관요소간 높이, 형태, 크기 등이 지나치게 대조되지 않고 조화되도록 유도
- 도심지 및 지역중심지 등은 도시 중심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고밀도 개발을 고려하되 수변지역과 조화로운 경관형성 유도
- 중심상업지역 주변은 도심성 강화 및 인근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와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조성을 유도
- 간선도로변은 개방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간적인 척도의 가로 경관이 되도록 유도
- 도로 양편의 건물높이, 크기 등이 지나치게 대조가 되지 않도록 스카이라인 형성
- 하천변이나 공원변 등 조망이 좋은 곳에 초고층 아파트를 유도하여 조망을 충분히 활용

### 3. 경관중점관리지역

구분	주요지점	경관계획
자연경관 중점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안산경계부의 마산, 수암봉, 나봉산 등</li> <li>•시가지내 광덕산, 노적봉 등</li> <li>•대부도 전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호산림경관으로서 시각적 단절감을 초래하지 않도록 시각통로 확보</li> <li>•구릉지 경관, 산악경관, 해양경관을 고려한 건축물 계획 수립</li> <li>•인공경관 정비를 통해 자연경관과 조화 도모</li> </ul>
수변경관 중점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월천, 안산천, 화정천, 신길천 지역</li> <li>•화랑저수지</li> <li>•대부도 해안, 시화호 지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 및 해양 생태계 보전과 친수공간 조성</li> <li>•수변경관의 유형별 차별화 전략 및 쾌적한 수변경관 조성을 위한 건축물 높이 계획</li> </ul>
전통경관 중점관리지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익선생묘, 별망성지 등 문화재 및 유적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사자원을 포함한 주변지역을 보존하여 주민의 휴식처 및 교육의 장소로 활용</li> <li>•역사문화경관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지명의 재현, 생가의 보존 등 지역의 장소성 부여</li> </ul>

[그림 9-III-1] 경관중점관리지역



## 4. 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관특화 계획

### ■ 친수공간 확보를 통한 수경관 창출

- 자연형 하천 정비 및 대부도 해안의 정비 추진(해상공원, 임해 관광지 등)
- 화랑저수지, 화정천, 안산천의 물놀이 체험공간 조성 및 도보 접근성 확보

### ■ 도시공원의 생태공원화 및 쌈지공원의 확대

- 도시근린공원의 생태공원화로 시의 특색 있는 경관을 창출하고 도시내 자투리 공간을 쌈지공원화 하여 도시내 오픈스페이스 확대

### ■ 역사적 환경 보존 및 문화기반 조성

- 실학 발생지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전통유적의 복원 및 유지
- 안산 특유의 전통문화놀이를 계승 및 발전시키고 상시 축제화를 통해 시의 문화적 정체성 형성

### ■ 상업지역의 고도화

- 상업의 활성화 및 도시 스카이라인을 고려한 기존 상업지의 고층화를 유도
- 안산시 도심의 고도화를 통해 도시위상 및 이미지 제고

## 5. 산업도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경관관리

### ■ 전통문화시설(이익선생묘, 별망성지)을 자원화하여 정체성 확립

- 시설과 지역의 장소마케팅(역사적 지명 재현 등)
- 전통문화경과 관리지역으로 지정 및 관리

### ■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및 문화축제 마련

- 도시차원에서 테마별 공원장, 미술관, 박물관 등을 확충
- 문화복합돔구장 건설
- 생활권별 도서관, 지역주민센터, 외국인 다문화센터 등 배치

### ■ 품격있는 건축문화 조성

- 지역별 정체성이 반영된 창의적 디자인의 건축물 설계
- 가로경관(건축물 입면부) 정비

### ■ 주변과 조화된 도시생활환경 조성

- 장소적 맥락성 반영 및 지역별 장소성 발현

### ■ 공공디자인 부문의 공공성 강화

- 경관전담부서 배치 : 2008. 2 도시디자인과
- 경관법에 의한 경관기본계획 수립 추진

### ■ 단절화된 도시공원간 그린웨이 조성

- 하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 정비를 통해 공원, 녹지 등의 접촉기회 제공

### ■ 지역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주제가 부여된 도시공원 조성